

본입찰만 남은 이스타항공 매각 늦어도 내달 초 새 인수자 윤곽

14일부터 본입찰 서류 접수
하림-쌍방울그룹, 양각체제 전망
운항정상화 최소 4개월 이상 필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본입찰 과정만을 앞두고 있다.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스타항공은 인수희망서를 제출했던 회사를 대상으로 한 예비실사 기간을 끝냈다. 앞서 이스타항공 매각 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인 지난달 31일 인수희망서 접수를 마감했고,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예비실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인수희망서를 제출한 회사는 하림그룹과 쌍방울그룹 등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주관사는 이들 가운데 인수전에 지속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사로부터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입찰 서류를 신청받는다. 이후 매각 금액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인수자를 선정하고, 우선 매수권자에게 최종 선정된 인수자의 제시 조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묻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매수권자를 정해 놓고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 킹 호스' 방식의 매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우선 매수권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선 매수권자는 한 중견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매수권자가 최종 선정된 인수자의 제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되게 된다. 하지만 우선 매수권자가 이를 포기하면 본입찰 서류를 제출한 회사 가운데 인수자로 뽑혔던 곳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은 늦어도 7월 초 이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비실사가 끝나고 본입찰 전까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인수희망서를 제출했던 회사들은 최종 본입찰 참여 관련 검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실사 결과 이들의 예상과 이스타항공의 현 자산, 부채 등 상황이 다르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본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인수희망서 제출 참여 규모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입찰 서류를 제출한 회사 가운데 새 인수자는 ▲입찰금액의 규모 ▲자금 투자의 방식 ▲자금 조달 증빙 등 계량지표와 ▲인수 후 경영능력 ▲종업원 고용 승계 ▲매각 절차 진행의 용이성 등 비계량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이 중 새 인수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입찰 금액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매각 절차

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운항 정상화를 위해 AOC(항공운항증명) 재발급 준비를 추진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AOC 재발급을 위한 테스트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운항까지는 약 4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전 국내선 및 국제선의 운항을 중단해 조종사의 면허 활성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AOC 점검 이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평균적으로 국토부로부터 (AOC 재발급을 위한) 점검을 받는 데에 3~4주가 걸린다"라며 "점검 이전에 이스타항공이 이와 관련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종사도 현재 3개월 이상 운항을 못해 면허가 정지됐다. 기본 교육, 시뮬레이터를 통한 가상모의 운항 및 실제 운항 등을 통해 면허 활성화를 하려면 약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본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하림그룹과 쌍방울그룹의 양각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국민과 함께 新성장동력 모색”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

대상 1억 등 총 상금 2억2900만원
1차 공모전 마감기한 9월2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성장동력 찾기에 나선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둔화된 경제성장세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국민 전체로부터 찾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최 회장은 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의 건강하고 다양한 혁신을 일으킬 때'라는 상공회의소 회장단 의견에서 시작됐다. 기업과 시민단체, 국민 등 국가적 역할을 집결시켜 이전과 다른 해법을 찾아 선진 경제로 이끌어 보자는 뜻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민간 활력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봤다"며 "경제활력 회복 방법을 몇몇 사람의 머리만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면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진행하는 공모전이라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모여진 아이디어들이 경제회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속도와 체감은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의 건강하고 다양한 혁신을 일으킬 때'는 상공회의소 회장단의 뜻이 모인 결과다. 이 자리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금춘수 한화 부회장, 박지원 두산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이사,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17명의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난달 함께 했었다.

공모전은 상시 운영하고, 상금은 일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1억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 3명은 각 3000만원, 우수상 3명은 각 1000만원, 입선 3명은 각 300만원 등 총 2억29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응모 방식은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그 장벽이 매우 낮다는 평가다. 제안 이유와 사업 개요, 기대 효과 등을 간단하게 작성해 대한상의 공모전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1차 공모전의 마감기한은 오는 9월24일이다.

수상작은 서류 심사 와 오디오션 등을 거쳐 선정된다.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문단과 심사위원은 외부 인사로 꾸린다. ▲목적 부합성 ▲민간주도 가능성 ▲과급성 ▲혁신성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에 높은 점수가 배정된다고 상의측은 전했다.

서류 심사 이후에는 'CEO 멘토링'이 계획돼 있는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 상의 부회장들이 직접 나설지도 관심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를 비롯한 기업계가 국가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수상작 선정이 이루어지면, 올해 말부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성운 기자 ysw@

LH,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 된다... 직원 20%이상 감축

국토부 LH 혁신방안 발표

투기방지 위해 신도시 조사가능 이관

정부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20% 이상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가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땅 투기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조사가능을 LH에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LH는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LH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 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LH의 인력이 20% 이상 감축한다. 현재 LH 직원 수는 1만 명에 달한다. 이 중 2000명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2단계로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등록대상 확대 ▲토지취득금지 ▲사업지구 토지

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갑질행위 차단 ▲성과급 환수 ▲방만경영관행 개선 ▲공공택지 입지 조사권한 회수 ▲타 기관 기능중복 업무 이관 ▲민간지자체이양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경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했다. /정영운 기자 yw964@

포스코건설 송도서 3635억 규모 개발공사 수주

B5블록에 복합업무시설 준공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인천 송도 신도시 국제업무단지 B5블록에 3635억원 규모의 대규모 비주거 복합업무시설 개발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디에이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치명경쟁을 거쳐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지분은 80%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 사업지는 지난 2017년 8월 착공 이후 장기간 표류되다가, 시행사인 엘제이프로젝트 PFV가 지난해 12월 사업인수를 하고 시공사도 새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초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 AT센터 비주거 복합업무 시설 수주 이후, 최근 주택 시장 규제



송도주상복합빌딩투시도 /포스코건설

강화에 따라 대체상품으로 수요가 이전하는 분위기 속에 본 사업 수주 추진을 결정했다.

송도 B5블록 복합업무시설은 지하 5층, 지상 최대 39층 2개동을 색션오피스, 주거형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초 준공 예정이다. /정영운 기자